

詩誌

# 종소리

제 103호

2025년 7월 여름호

시지

# 종소리

103 호



2025 년 여름호

(103 호)

## 차 례

그 종소리	김 성 순 (4)
너희들이 향하는 곳은	허 옥 녀 (6)
바람개비처럼	서 정 인 (8)
운동회	심 달 야 (10)
비누풍선	리 유 실 (12)

자 누 이 사 누 르 / 자 켜 바 켜 가 사 사 모 켜 누

신임선생님의 교수안	박 태 진 (13)
잊지 못할 소년단야영	리 정 철 (14)
온천	김 애 미 (18)
소경흉내 내려다가	서 홍 권 (20)
세월이 가르치다	하 의 배 (24)

불굴의 계승	양 금 녀 (26)
참삶의 목소리	리 일 렬 (28)
뛰여라	김 윤 순 (30)
침묵으로 나누는 대화	윤 창 영 (31)
꽃다발	김 명 혜 (32)

자 누 오 사 누 름 / 자 켜 바 쉰 가 사 가 모 흥 누

나는 몰랐네	허 옥 녀 (34)
등기당기 등기당	김 려 우 (36)
니이가따항 배고동소리	김 성 철 (38)
비빔면	채 덕 호 (40)
화요일 아침	진 승 원 (41)
*후기*	(44)

## 그 종소리

김 성 순

구석진 나루터에서  
쪽배 한척이  
나아간다

해는 벌써 배머리에 와닿아  
물살 헤가르며  
서서히 앞으로

새록새록 바람결  
홍을 매여나가  
오롯이 우러난 참과 슬기

겹겹 여울마다  
간신히 뿌리며  
번져가는 파장을  
무심코 바라보니

어스름과 아우르며  
초저녁에 웅심깊이  
울리는 종소리

휘영청  
달 밝음이  
오늘따라 유별난가보네

## 너희들이 향하는 곳은

허 옥 녀

아이들아  
너희들이 기쁨안고 향하는 곳은  
증조할배, 함매들이 세우고  
할배, 함매들이 다닌 학교란다

아빠랑 고모들이 자라고  
오늘은 너희들이 배우는 학교  
4대가 대를 이어 희망을 키운  
고향집같이 아늑한 배움터란다

모모다니(桃谷)에서 야오(八尾)로  
다시마(田島)에서 다마꾸시(玉串), 히시에(菱江)로  
오늘은 오사까(大阪) 한복판으로  
세월과 더불어 터전은 달라졌어도

70여년 변함없던 하나의 소원  
자식들을 참되게 자래우리  
옳바른 라침판이 가리키는 길 따라  
조선의 공민으로 당당히 살게 하리

나라를 빼앗겨 이국땅 헤매일 땐  
조선말을 했다고 지지리 짓눌렸건만  
오늘은 노래하듯 우리 말로 생활하며  
새 사회의 주인되리 활개치는 너희들

자랑찬 너희들의 오늘을 위하여  
보람찰 너희들의 래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선대들의 뜻 이어  
너희들은 나아가거라 앞으로 앞으로!

이역살이가 고달플 때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오리라  
미래가 바라보이는 오사까중고를!

꿈이 아니여라 리상만이 아니여라  
너희들은 지금 향하고있나니  
이 세상 어느 해외동포도 못 이룬  
민족교육 100 년의 새 력사 창조하며

-오사까조선중고급학교 새 교사 준공의 날에-

# 바람개비처럼

서정인

운동회의 날  
명절음식같은 점심을  
일찌감치 먹고나서는  
운동장을 마구 달리는  
저학년 아이들

오후경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높뛰는 마음그대로  
좋아라 웨치며 냅다 뛰어라

푸르른 하늘을  
가슴가득 채워선가  
나는듯 바람개비처럼  
웃으며 지나가는 너희

《경축-창립 80돐!》의 기발이  
나뭇기여 누리에 오늘을 떨칠 때

그러는 너희 등너머로  
언뜻언뜻 나타나는 풍경은

세월을 새겨온 하늘색 《캔버스》에  
우리 동포들  
로력과 정성과 소원을 합치여  
한땀 두땀 수를 놓듯 그려낸  
《한쪽의 그림》이여서

이 배움터에서 마음을 자래워가는  
너희가 커서 부모가 되어  
자식들을 지켜보는  
그날까지도 옛보인다  
《우리》인 우리가 바람속에

흐뭇한 감정들은 맴돌아  
너희를 바라보는 이 가슴에는  
오늘과 비슷한 백뚝의 날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른다

## 운동회

십 달 야

동포들이 모여온다  
우리 학교가 흥한다  
천막도 운동장도  
기쁨이 휩쓴다

사람들마다 웃음에 겨워  
어린이들의 이쁜 모습  
학생들의 씩씩한 모습  
성원도 박수도 시간 지날수록 커진다

농악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 미래가 있다  
우리를 배격하는자에게는 천둥을 내리고  
화목한 동포동네를 노래한다  
촬영기는 명장면 놓칠세라 초점을 맞춘다  
설레이는 감동을 억누르면서도

우리 학교 운동회는  
어려운 환경속 학교에 다니게 해준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이 고마움을 《선물》하는 날  
이 사회 어지럽기만 해도  
우리 학교에 보낸 보람 넘치고  
동포 보호자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날이다!

## 비누풍선

리 유 실

들판에서 강아지처럼  
뽀뽀뽀 뛰놀다가  
달려오는 두살짜리

불쑥 두손 내밀며  
-엄마, 여기 봐!  
비누풍선 잡았어!

깨지지 않는 비누풍선  
꺼지지 않는 비누풍선  
분명히 보였어 네 미소속에

## 신임선생님의 교수안

박 태 진

밤 2 시

신임선생님이 교수안을 짠다  
새로운 출석부에 새긴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쓰고는 지우고 다시 쓴다  
첫만남에 웃으며 반겨준  
아이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새벽 5 시

불안과 기대로 높뛰는 가슴  
첫수업을 앞둔 교수안과 함께  
아침노을을 맞이한다

어릴 때 장래희망 꿈꾸던 날  
고이 가슴에 품었던  
순결한 마음과 함께  
새 아침이 서서히 밝아온다

## 잊지 못할 소년단야영

리 정 철

그리워라 소년단야영의 그 나날  
지금도 잘 있느냐  
한없이 수려했던 수양산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높이도 올려 쌓아놓던  
해주소년단야영소여  
이 새벽 수도 평양에서  
조용히 너를 안아보노라

이제는 수십년세월 흘렀어도  
그 나날을 생각만 해봐도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누나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야영소로 입소하러 들어가던 그날이

해주시의 멋진 고층살림집들  
정말 희한도 했지 쪽 뺨은 대통로  
어리둥절 고개를 돌려가며

사방을 휘둘러보던 우리 학급의 상호동무  
끝내 연석에 발을 걸치여 넘어졌다  
다급히 그를 부추겨 깔깔 웃음 터뜨리던  
그 웃음을 내 다시 터치고싶구나

즐거운 야영생활  
한생에 품은 아름다운 마음을  
그 나날에 다 쌓아놓은듯  
수양산등산길의 못잇을 그날은  
나의 작은 가슴에 갈피갈피 채워주었노라  
내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한생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를

새소리 물소리 우리 가슴 휘젓던  
태어나 처음 보는 아름다운 계곡  
밥을 짓느라 군대식으로 야전밥통 걸어놓고  
불이 미여지도록 입바람 후후—  
그 즐거운 나날 가슴에 소중히 간직되던  
그것이 바로 내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던가

우리들의 마음에 끝없이 가득차  
흘러흐르던 수양산의 맑은 물  
어쩌면 계곡의 물은 그리도 깨끗할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저렇게 맑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심어준 야영의 그 나날이  
정녕 내 조국의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던가

잊지 못할 소년단야영을 추억하며  
열어보네 내 사랑의 마음을  
위훈의 열망은 얼마만큼 자라왔는가를  
조국위한 그 마음 티없이 순결한가를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자주 물어보네

조국이 안겨준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한생에 간직하고 보답의 마음 바쳐갈 때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될수 있어라  
누구나 부러워할 열정 내뿜으며  
보다 큰 위훈을 세울수 있어라

잊지 못할 소년단야영  
그 나날을 언제나 잊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안고 내 조국의 부강을 위해  
나의 사랑 다 바치리라  
위훈을 높이 떨치리라  
조국이여 그대 날 키워준 그 정처럼  
높이도 성스럽게 나의 삶을 바치고 또 바치리라!

(조선거주)

## 온 천

김 애 미

어릴적  
할매랑 동네아줌마들이  
데려가준 온천지  
나가사끼현 이끼(壑岐)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아프다고 하는 나에게도  
천연온천이 효과가 있다며

-아이고 허리야  
-여는 좋네 ※  
온천물속에 들어가  
삼시에 나온 말에  
웃음소리 퍼지고

조금만 더 가면  
보일듯말듯 고향땅  
그쪽을 보시며

할매는 살짝 바랐을걸

손자의 다리가 튼튼해지기를  
우리모두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그래야 언젠가  
돌아갈수 있다고

그때의 할매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  
비로소 알았네  
온천물에 담은  
우리 할매의 따뜻하고 깊은 뜻

※ 《여는》은 전라도사투리, 여기는

-우화-

## 소경흥내 내려다가

서 홍 권

어둡시근한 풀숲에서 이발을 갈며  
어떻게 하면 삼엄한 양지동산을  
렘탐할것인가 궁냥하던 여우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네  
(그렇지 소경흥내를 내면야...)

지팡이를 짚고  
검은 안경 낀 여우  
겉보기에 마치 소경인듯  
걸음마저 비척비척  
(이렇게 하면야 제까짓것들이)

톡톡톡...지팡이를 다독이며  
동산보초소를 지나려는데  
《셋! 누구야?》  
멍멍이보초병의 야무진 목소리 울렸네  
《어이쿠. 깜짝이야. 나 여우야》

귀박죽을 곳곳이 세운 멍멍이

《여우, 네놈이

우리 동산엔 왜 기신기신 접어들어. 멍멍...》

그러자 여우 닭똥같은 눈물 떨어지며

신세타령 늘어놓았네

《이보게 멍멍이

난 지난해에 벼랑에서 떨어져

벼타박을 받고 소경이 되었네 흑흑흑...》

여우 구슬프게 흐느끼며 동정을 살피는데

멍멍이어조도 한결 수그러진듯

《그러니 우리 마을에서

얻어먹으며 살자는거냐?》

《아니아니, 내 성미를 잘 알지 않나

그래도 정신만은 똑똑한 여우야

빌어먹을바엔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는편이 낫지

사실 저 아래마을에 눈병을

잘 봐주는 명이가 있다길래

행어나 해서 가보는 길일세

헌데 여기로 지나가면 지름길이라더군》

여우의 말에 이것저것 생각하던 멍멍이  
《그게 정말이야?  
땀마음을 먹은건 아니겠지?》  
《정말이라니까  
앞못보는 소경이라고 너무 깔보지 말게》  
한참만에야 멍멍이 길을 내여주니  
여우는 그제서야 《후…》 하고  
안도의 숨 내쉬었네

멍멍이를 그럴듯하게 속여넘긴 여우  
동산길을 삐젯이 걸어가며  
여기저기 살펴보았네  
동산입구에 있는 살찐 양네 집  
산기슭에 있는 식솔많은 토끼네 집  
착한 짐승들의 거처지는  
죄다 내탐하러 이리기웃 저리기웃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멍멍이의 웨침소리  
《여우야, 피하라!  
돌이 굴러내려온다!》

그러자 뒤를 돌아본 여우  
황급히 이쪽저쪽 둘러봐야

사방은 고요할뿐  
검은 안경까지 벗어던지고  
아무리 살펴봐야 돌은 무슨 돌  
《어디? 어디? 돌이 어디 있어?》

성난 눈에 불을 필필 달고  
쏟살같이 달려온 멍멍이  
여우의 덜미를 와락 물고 하는 말  
《여우 이놈, 뭐 소경이라구?》  
그제서야 제 실수를 깨달은 여우  
《아이쿠.》 하고 골통을 싸쥐었네

《교활한 네놈의 눈빛에 비긴 검은 속심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감추지 못하는법  
너같은 놈에겐 몽둥이가 제격이지》  
멍멍이 단호하게 몽둥이로 후려치자  
단방에 너부러진 여우  
마지막몰숨을 내쉬며 애고고 탄식을 하였네  
《이젠 진짜 앞이 안보이누나》

(조선거주)

## 세월이 가르치다

하 의 배

어려서는  
부친의 손목시계 달력을  
맞추어드렸다

몇달 지나니  
또 날자가 틀리니  
《나무라》면서 다시...

오늘의 날자를  
확인하실 때  
불편하실가봐

젊어서는  
길가는 로인들  
기우뚱거리며 힘들게 걸을 때  
다친 사람인줄 알고  
측은하게 여겼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맞았거나  
그 무슨 수술후에 남게 된  
증상일거라고

하많은 세월을 보내고서야  
가르쳐주더구나  
이내 몸이

깨알같은 수자  
보이지도 않으니  
어느 날을 가리켜도  
상관할바가 아니며

온몸의 마디마디는  
안 다쳐도  
아파진다는걸

-가사-

## 불굴의 계승

양금녀

모질고 거치른 남의 나라 땅  
걸음마다 시련이 겹쌓였어도  
민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어온 우리입니다

존엄과 긍지를 지키기 위해  
험한 길 손잡아 헤쳐온 우리  
좋은 땀 한데 모여 웃었습니다  
힘들 땀 굳게 뭉쳐 싸웠습니다  
그렇게 자욱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년륜을 새겼습니다

혈육의 정으로 믿어준 조국  
그대가 비쳐준 지침이 있어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굴함없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새 력사 새겨잡니다  
그렇게 한길을 걸어잡니다

## 참삶의 목소리

-고 조해일고문의 부고에 접하여-

리 일 렬

고지식하고 대바르며  
어느때나 원칙적이어서  
대학을 갓 졸업한 풋내기시절  
내게는 《어려운》 분이시였다

그러는 고문님은  
멀리서 잘 왔다며  
종종 말을 건네도 주셨다  
-밥은 먹었나, 부모님은 잘 계시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에 잠기면  
내 등을 쓸어주시는듯  
-정세가 아무리 험악한들  
자기 신념에 따라 걸어가자

언제나 당당하시였다  
어디서나 겸허하시였다

놈들앞에선  
호랑이가 되시던 고문님은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삶의 먼 길을  
묵묵히 곧바로 걸어오신 그 모습은  
바로 애국선대들의 그것이었다

눈을 감으면 안겨오는  
존경하는 고문님의 모습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참된 삶의 목소리

-위대한 태양을 따라 걸어온 내 인생  
한점의 후회도 없구나

※조해일씨

재일본조선히로시마현상공회 고문

2024년 12월 23일서거 (만 83세)

# 뛰여라

김 윤 순

아이들은 뛰여라  
폴짝폴짝 뛰여라

바람 불어도  
폴짝폴짝

비가 와도  
폴짝폴짝

노래하며 뛰여라  
춤추며 뛰여라

물웅덩이우에서도  
진흙탕우에서도

폴짝폴짝 뛰여라  
신나게 뛰여라

## 침묵으로 나누는 대화

윤 창 영

서로가 고향 지를 뻔  
실은 잘 몰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기를 그만두었더니  
네가 있어 내가 있음을 사색하게 되고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깨어나는  
아침은 밝아왔거니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음이 오가는  
좋은 아침,  
맑은 아침의 나라!

## 꽃다발

김 명 혜

5 월의 《어머니의 날》  
뜻밖에도 집에 돌아온 아들  
조대를 졸업하여 처음 맞는 이날  
얼굴 병그레 수집어하면서  
살짝 주던 꽃다발  
난생처음 받아안은 꽃다발  
화려한 꽃에서 풍겨오는 향기  
내 마음 삼시에 녹여주고  
지내온 스물두해의 세월이 스쳐지나가네  
40 여년간 교원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이키우기에만 시간을 다 바칠순 없어  
응석 부릴대신 참아야 할것이 많았을건데  
초급부시절에는 이 엄마가 급병에 걸려 걱정끼치고  
중고시절에는 담임사업 바쁘게 떠돌아다니고  
초중고 다감한 시절 언제나 같은 학교에 다녀  
싫은 일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 언제나 기쁨과 웃음만을 주며  
래일의 희망을 안겨주었건만

름름한 청년으로 자라나 감사를 전해주니  
아, 내 마음 한없이 흐뭇해지네  
받아안은 꽃다발 많고많아도  
세상에 둘도 없는 꽃다발  
《어머니의 날》 꽃다발은  
너의 인생처럼 참으로 화려하구나

## 나는 몰랐네

허 옥 녀

언니와 오빠따라 다닌 우리 학교  
소노다(園田)의 자그마한 소학교분교에서  
아야어여 배우기 시작한 1학년때에  
그대가 무어진줄 나는 몰랐네

우산 만드느라 해종일 일하시면서도  
동포집 찾아다니며 일손 도와주시던  
분회장 우리 아버지모습 자랑스러워  
크거들랑 아버지처럼 되리 생각했었지

바다 건너 저멀리 어머니조국에서  
생명수같은 교육원조비가 보내오고  
꿈처럼 귀국의 배길이 열렸을 때도  
난 몰랐네 그길이 어떻게 차려졌는지

보람찼던 선전대며 문예동활동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워주던  
혈기많은 청춘시절엔 더더욱 몰랐네

나의 삶 나의 꿈이 어디서 온것인지

뜻밖의 사고로 막내아들을 잃어  
래일을 살아갈 희망 잃고 헤매일 때  
그래도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고  
눈물 닦아준 동료들이며 분회동포들

가장 어려울 때 껴안아주고  
아픔 덜어주려 등 쓸어준 손길들  
그때에야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70년세월 함께 가자 이끌어준  
조국의 품같은 고마운 그대여  
나는 알았네 이제야 알았네  
총련! 그대 있어 내삶도 꽃피었음을

-총련결성 70돛을 축하하여-

## 등기당기 등기당

김려우

더 흥겨운 이날에  
가야금소리 울린다  
치마저고리 차려입고 뿜기는 소리  
궁지높은 가슴들을 울린다

어려운 고비마다 앞채를 메고  
《우리》를 이끌어오는 모든 나날에  
마른일, 굶은일 가리지 않던  
진짜 주인공들,

대와 대를 이어 정성으로 새긴  
일흔돌기의 년륜을  
세상에 떨치며 자랑하며  
등기당기 가야금소리

《이국의 하늘아래》  
동포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가꿔온

《우리》의 서사시를  
도저히 알아홉줄 현으론  
다 담을수는 없어

온몸으로 부르는  
노래소리 합치니  
동기당동기당 가야금을 타고서  
소리는  
푸르른 5월에 메아리쳐  
이국의 하늘을 채운다

-총련결성 70 돌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언제나 빛나라 우리의 총련》을 보고서-

## 니이가따항 배고동소리

김 성 철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라  
동해바다 배길 다시 열자하신  
서한의 뜨거운 마디마디에  
이 가슴은 파도쳤네 추억이 밀려왔네

《〈금강산〉가극단》의 한 성원으로  
해마다 조국을 오가던 서른해전 그 나날  
부모님이 계시는 나가노(長野)보다  
더 자주 다녀 정이 든 니이가따(新潟)항이여

들어설 땐 어서오라 포근히 안아주고  
떠날 땐  
변치들 말라고 당부하듯 울리던  
못 잊을 니이가따항 배고동소리

동해바다 막힐줄 알았다면  
더 가슴속 깊이 새겨둘걸 그랬구나  
너를 무심히 듣던 나는

참말로 철부지였구나

이제는 기억속에 희미해지던 배고동소리  
구름뚫고 파도헤쳐 다시 울리기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지개 확 피게하는  
아. 니이가따항 배고동소리 !

## 비빔면

채 덕 호

민족강사연수로 간 전주에서  
비빔면을 먹었다  
신기하게도  
불고기가게 경영하는  
장모 비빔면맛과 똑 같았다  
내 교원시절  
점방일을 도운 후  
수고했다고 만들어주신 비빔면  
달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  
고추장에 푼힌 고소한 면을 먹으니  
새힘이 나는듯  
세살 철들기 전에 일본에 건너오셨다는데  
고향맛은 그 손에 깊이 스며졌네  
내 고향 제주도엔 한번도 못 갔지만  
1 세 손맛을 보고 자란 나는  
어느새 어머니란 고향속에서 살아온것이구나

## 화요일 아침

진 승 원

화요일 아침  
세면대앞에 서니  
거울속에  
할아버지가 섰었다

허연 중머리에다  
흰털 섞인 눈섭  
일흔일곱 잔주름속에  
눈빛만은 번쩍이면서

오늘이 615 번째라 한다  
오사까부청앞에  
술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함께 서자고  
며칠을 폭 쉬었다  
치료원을 꼭꼭 다녀

어제는 침도 맞았었다네

말을 배워주고  
글을 익혀주고  
참된 사람으로 키워준  
민족교육의 화원

우리 같은 행복을  
귀염둥이들도 누려야지  
아니 그런가  
나를 보고 눈짓을 한다

《암요》 대신 싱긋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울속에서도 싱긋  
고개를 끄덕인다

《자!》, 《가자!》  
호응도 빠르지  
마음은 벌써  
부청앞에 서는구나

화요일 아침  
세면대앞에서  
할아버지와 나의  
《화요일행동》이 시작된다

## 103 호 후기

조국해방 80돛이 다가온다. 80년이면 사람의 한생이다. 해방의 기쁨을 안은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개학의 종소리를 울린 《국어강습소》에서 시작된 우리의 민족교육.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창립 여든돛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시련의 고비는 계속되여도 한결 같이 동포자녀들의 더 밝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

글쓰는이들도 언제나 그런 미래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동포들의 가슴에 스며드는 글을 쓸수 있을것이다. 명심하련다. (인)

=====

## 詩誌 종 소 리

---

發行	《종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發行日	2025年7月15日 (日本·東京)

##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종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종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과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시여 협력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바입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チャング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